**마1834 Note**

**◆** **Cross check : 누가 은총과 은혜와 호의를 입는가/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시8914. 올바름[쩨데크:(자연적, 도덕적, 법적으로) 올바름, 의로움,공정,번영,균등한,공정한,의로운]과 정의(미쉬파트: 판결,언도나 공식적 선언, 사람의 법,율법,정의,의식,예법,관습,결정,분별,부과금,재판,재판받다,정당한,바르게,방법,정당한 절차,규례)가 당신 보좌의 거처(마콘:고착물,기초,장소,거처,주거지,정착된 장소)라, 인자하심(헤쎄드: 인자함,경건,아름다운,은총,선행,친절하게,인애,연민,자비,긍휼)과 진실되심(에메트:안정성,확실함,진리,진실,확실한,옳은,참된,신실한,진실로)이 당신의 얼굴 앞에서 가나이다.

약0213. 이는 아무런 긍휼(엘레오스:긍휼,자비,인애)을 보여주지 않았던 그는 무자비한(아닐레오:냉혹한,무자비한,무정한) 심판[크리씨스:결정,결심,재판소,하나님의 법,공의,정죄,단죄,비난,재판/히브리어'미쉬파트(결정,판결,심판,선고,정의,법)'에 상응]을 받음이라, 그리고 긍휼(엘레오스)이 심판에 대해 뽐내며 기뻐하느니라(카타카우카오마이:매우 기뻐하다,뽐내다).

1.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의 양면성

Ω롬11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크레스토테스:유용함,탁월함,인자함,자비,선함)과 준엄하심(아포토미아:단호함,엄격함,준엄,날카로움)을 바라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나, 만약 네가 그분의 선하심 안에 계속 머무르면, 네게는 '선하심'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역시 잘려지느니라.

2.호의와 긍휼을 베풀 만한 자

출3319.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니라,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이 네 앞에서 지나가게 할 것이며,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서 공공연히 포고할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호의를 베풀(하난:구부리다,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다,은혜를 베풀다,자비를 베풀다,긍휼히 여기다) 자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며, 내가 긍휼(라함:귀여워 하다,사랑하다,측은히 여기다,자비를 입다,자비를 베풀다)을 보여줄 자에게 긍휼을 보여줄 것이니라.

롬0915. 이는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심이니, 내가 그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엘레에오: 측은히,불쌍히,긍휼히 여기다,동정하다/ 히브리어 하난:구부리다,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다,은혜를 베풀다,자비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하난'의 의미로 15,16,18절 해석함) 자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 것이며, 내가 그에게 '함께 걷기'를 가지고 있는(오이크테이로: 동정을 베풀다,불쌍히 여기다) 자에게 내가 '함께 걷기'를 베풀 것이니라,

롬0918. 그러므로 그분께서 호의를 가지실(엘레에오/하난) 자에게 그분께서 호의를 베푸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를 그분께서 완고하게 하시느니라(스클레뤼노:굳어지다,완고하게 되다,강팍케 하다).

3.범법이 사면되고, 불법이 전가되지 않으며, 죄가 덮여지는 자

시3201. 자기의 범법(페솨: 반역,죄,범죄,범하다)이 사면되고, 자기의 죄(하티아:위법,위법에 대한 희생제물,속죄물,죄의 명사)가 덮어지는 그는 복되니라.

시3202. 여호와께서 무도한 불법(아본:사악함,악,과오,범법,해,징계,죄,이탈)을 그에게 전가하시지(돌리시지) 않는 자와 그의 영(靈) 안에 아무런 교활함이 없는 자는 복되니라.

벧전0408. 무엇보다도 너희 사이에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은 허다한 죄(빗나감)들을 덮음이라.

잠1012. 증오는 다툼들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느니라.

4.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심, 시선이 머무는 자

사6602. 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며, 그 모든 것들이 있어 왔음이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에게, 가난하며 회개하는 영(靈)에 속하고 내 말에 떠는 바로 그에게. 내가 시선을 돌릴 것이니라(나바트:열심히 바라보다,골똘히 바라보다,기쁨과 호감과 주의를 가지고 주시하다,보다,간직하다,여기다,주의하다,존중하다).

잠1422. 악을 궁리하는 그들이 오류(길에서 벗어남)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인자하심(헤쎄드: 인자함,경건,은총,선행,친절,인애,연민,자비,긍휼)과 신실하심(에메트:안정성,확실함,진리,진실,확실한,옳은,참된,신실한,진실로)이 선을 궁리하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5.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

롬0614. 이는 죄가 너희에게 주권(主權)을 갖지 못함이니, 이는 너희가 법(노모스)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카리스, 호의) 아래에 있음이라.

갈0518. 그러나 만약 너희가 성령에 의해 인도 받으면, 너희는 법 아래에 있지 않느니라.

6.행실대로 보응 받기

마0507. 긍휼히 여기는(엘레에몬:동정하다,자비로운) 자들은 복되니,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엘레에오:측은히,불쌍히,긍휼히 여기다,동정하다)을 손에 넣음이라.

Ω마1835. 만약 너희 마음으로부터 너희가 자기 형제 낱낱의 자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사면하지 않으면, 천국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마찬가지로 하시느니라.

약0213. 이는 아무런 긍휼(엘레오스:긍휼,자비,인애)을 보여주지 않았던 그는 무자비한(아닐레오:냉혹한,무자비한,무정한) 심판(크리씨스:결정,결심,재판소,공의,정죄,단죄,비난,재판)을 받음이라, 그리고 긍휼(엘레오스)이 심판에 대해 뽐내며 기뻐하느니라(카타카우카오마이:매우 기뻐하다,뽐내다).

마0702. 이는 너희가 판정(판단)하는 그 판정으로 너희가 판정 받으며, 너희가 재는 그 척도(메트론:척도,미터,제한된 분량,정도,한도)로써, 그것이 너희에게 다시 측정됨이라.

잠2113.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들을 막는 누구든지, 그 역시 스스로 부르짖으나, 들리지 않느니라.

**◆이정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 그 가운데 생명의 좁은길이 있습니다 - 변승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나를 용서하셨지만 나를 사랑하시지는 않아.

나는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났고 크게 쓰임 받지는 못할거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에 속박을 당하고 결박당하여 큰 꿈을 꾸거나 이루지 못합니다.

분명 이것은 그 개인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큰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의 주옥과 같은 글 "하나님의 고통"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마귀의 참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십니다 (시 103:12), (사 38:17), (미 7:18-19), (히 8:12).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 없는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회개한 죄들을 보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죄를 용서하실 때 완전히 잊어버

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들에 대하여 악감을 전혀 갖고 계시지 않습니

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낙인을 찍지 않으십니다. 낙인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게나 찍

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회개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

고 잊어버리는 분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사 43:25)

 "나 곧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사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죄를 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을 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한 후에 그 죄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

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음으로 어느 누구도 따돌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과거의 죄로 사람을 이류와 삼류로 구분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증명해주는 것은 릭 조이너가 쓴 "추수"라는 책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낮은 계급으로 보였던 이들 중 얼마는 하나님의 최고의 장성들이 될 것

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상당수를 결코 알아보지 못할 것이지만 하늘나라와 음부, 전 영

계의 군대에게 그들은 창세전부터 알려져왔다....

그들 중 얼마는 돌이키기 전 인간의 죄, 상처와 절망의 바닥을 기던 생활을 했을 것이

다. 많이 사함을 받고 또 많은 것에서 해방을 받았기에 그들은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원수가 그들 속에 깊이 파고든 만치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후 그들 속 깊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생명나무의 빛으로 빛나며 모든 나라들을 치료하게 될 것이다.

다가오고 있는 날에 가장 큰 생명을 교회에 가져올 사역자중 얼마는 지난날 큰 과오를

저지를 이들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낭패하여 모든 인간의 노력과 힘의 막바

지에 다다른 후에야 주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성서상으로 또 역사적으로 실재

하는 일들이다. 높임을 받기 전 겸손이 오는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끝까지 성경은 한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룬다.

구속.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극심한 영적 실패를 체험한 사람 중에  많은 수가 그 실패 때문에 주님께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쓰실 것이다.

이런 실패로 인한 겸손함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더 많은 영적 권세를 주시도록

한다.주님을 부인한 후의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셨듯이......!"

과거에 깊이 타락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하나님이 자기를 크게 사용하

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류는 지나갔고 주님을 위해서 2류나 3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

다. 그러나 이것은 참소하는 자인 사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 거짓말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렘 29:11)

렘2911.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해 생각하는 생각들을 내가 알고 있음이니,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에게 소망이 있는(티크바: 끈,노끈,줄,기대,예상,소망,살다) 끝(아하리트:마지막,끝,미래,후손,뒤쪽의,맨 마지막의,극단의, 길이,후손,남은 자,찌꺼기,보상)을 주기 위하여, 평강의 생각들이지, 악함의 생각들이 아니니라,